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복날 맞이 보양식 대접

2021. 8. 10.



- 전국 물류센터별로 직원들에게 말복 맞이 특식 제공해
- 직원들 혹서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선보일 것

2021. 8. 10.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삼복 더위의 마지막 날인 말복을 맞아 현장 직원들 건강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말복을 맞아 전국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삼계탕, 닭곰탕, 철판 삼겹살 구이 등 몸 보신에 좋은 다양한 영양식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물류센터별로 구내식당과 함께 준비한 이번 특식 이벤트는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물류센터 별로 영양식을 비롯해 아이스 티, 과일주스, 아이스크림 등 무더위로 인한 피로를 잊게 해줄 후식도 제공되었다.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됐다. 부천 1 물류센터에서는 수박 무게를 가장 근접하게 맞춘 직원에게 시원한 수박을 선물로 주는 ‘수박무게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말복인 10일 쿠팡 안성 물류센터 직원들이 회사가 준비한 삼계탕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이날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말복을 맞아 전국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몸 보신에 좋은 다양한 영양식을 제공했다. 쿠팡은 혹서기를 맞아 직원들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은 혹서기를 맞아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 배송캠프와 물류센터에 시원한 생수와 얼음물 등을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차가운 물 이외에도 추가로 아이스크림, 식염포도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물류센터에서는 각 공간별 상황에 따라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대형선풍기 등 냉방시설을 설치했고, 휴게실과 작업공간에 대한 다양한 냉방설비 설치 등 여러 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직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